

# 2023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2.21.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	3	-	3	7	-	7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 참고	반론	합계
건수	7	-	-	7

### 다. 전월(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대덕특구 50년>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인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특집물들이 있는지 궁금	대덕특구 50주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대덕 50년 과학강국 100년'으로 정하고 각종 개별 보도와 기획보도 특집다큐를 준비하고 있음 <23. 2월 조치>	'22.1월
보도	<난방비 폭등>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원룸을 취재했는데 원룸보다 난방 환경이 더 열악한 달동네나 최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도 취재하고 대안도 모색해 주길	지자체들이 난방비 보전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전시는 아직 특별한 정책이 없는 상황. 서민경제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할 예정 <23. 2월 조치>	'22.1월
보도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보도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 장점만 부각시켰는데 대전에 KAIST가 있으니 심층적으로 더 다뤄주었으면	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단점들도 존재한다고 보고 심층취재를 할 예정 <23. 2월 조치>	'22.1월
보도	<한파 쉼터> 한파쉼터가 지역에 600곳이 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운영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은 좋은 보도였지만 책임 있는 지자체의 입장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파쉼터는 부실 운영도 문제지만 입장 통제도 문제. 그런 문제점들을 심층취재해서 보도할 예정 <23. 2월 조치>	'22.1월
보도	<설 명절 전통시장 보도>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폐지와 연계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보도로 정책에 대한 과제 제시. 하지만 해수부의 수산물 구매시 30% 환급 정책은 보도되지 않아 아쉬워	전통시장 통제가 나오면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 후속 보도 이어나갈 예정이고,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비슷한 기사가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보도할 예정 <23. 2월 조치>	'22.1월

보도	<자치단체 정책 과제> 새해를 맞아 대전, 세종, 충남의 각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중간 중간 한번씩 후속 보도를 해주길	세종의사당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질의서를 통해 수집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중요 정책 이슈를 새해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할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보도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등> 지역 소멸과 지역인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은 지역언론에서 다뤄야 할 화두이자 중요한 이슈로 전국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취재, 공동 캠페인을 방송할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교양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룬점은 좋았지만 발전소 측의 입장까지 엮어서 같이 방송했으면 더 좋았을 것.	<이추남>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이지만 반론권 보장 차원의 문제도 앞으로는 잘 챙겨볼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교양	<지역 인물 다큐> MBC경남의 <어른 김장하>는 전국 방송되면서 큰 호응 받음. 대전MBC도 대전, 충남 지역의 인물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역 인물 다큐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기타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 지역방송사의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중,저학년 대상으로 부모들의 호응도 좋을 것 같고 지역성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좋아.. 잘 기획해주길	소년소녀합창단은 사업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이나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기타	<유튜브 등 SNS 관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해서 재가공 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최근 콘텐츠 배치 검토 필요	대전MBC 유튜브와 뉴스 유튜브 등 외부 업체를 통해 콘텐츠 재가공 관리하고 있는 상황. 최근 명품 다큐 콘텐츠 우선 배치 예정 <b>&lt;23. 2월 조치&gt;</b>	'22.1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3년 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한파 쉼터 보도>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이용하는 문제로 담당공무원과 거주민들의 입장차이가 있던데 더 나아가 이 것이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닌지를 보도하면 좋을 듯.	회의록 첨부			
교양	<시시각각 자막> 패널들의 발언이 전달력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막이나 그래픽 작업 필요해 보여.	회의록 첨부	○		
교양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집> 올해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집으로 시시각각 등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교양	<고향사랑기부제> <오늘M>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방송 내용 유익했음. 방송을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청자 위원을 새로 구성하게 되는데 세대 다양성 측면에서 청년 세대 등 젊은 연령층도 적극적으로 선임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사프로그램 부활> 지역의 시사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역에 KBS만 있는 실정임. 대전MBC도 부활을 검토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기타 (계시판)	<지진 시 대피요령 영상>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빌라 밑으로 대피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진발생시 건물을 피하고 넓은 공터로 대피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용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 부국장 이은표입니다. 지금부터 2월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분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셔서 회의 성원이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시청자 계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총 2건이 올라왔는데요. 1건은 라디오 선곡 중단에 대한 의견이고 나머지 1건은 지진피해 재난방송 영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이 7분입니다. 후임자 공모를 이달부터 시작하는데요. 공모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훈진 위원님께서 대전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2월 시청자 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지난번엔 겨울이 한창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셨던 분들도 임기가 다 돼 간다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우환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환이 빨리 지나가고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본사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늘 중으로 아마 내정자가 나오고 내일 주총을 통해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주실 위원님을 호선해야 하는데요. (의견 교환...) 그럼 마정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까. 인사말씀 해주시고 바로 정기회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네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겨 주셔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진행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격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임기 만료 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들이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또 MBC 안팎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바른길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같음하고요. 정훈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해주시죠.

정훈진 위원

요즘 MBC를 보기보다는 MBC에 관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많았구요. 대전MBC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같이 발전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뢰 받는 방송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2월에는 특별히 대전MBC 방송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이 자리는 프로그램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전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임재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시시각각>을 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 주간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5일과 11일은 윤대엽 교수 연수로 한발대 김세환 교수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교체된 줄 알았는데 연수로 인해서 대신 진행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월 5일에는 1부 승격 '대전', 그리고 탈꼴찌 '한화'에서 지역의 축구와 야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선 김세환 교수께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긴장을 한 모습과 약간 어색함이 있었고요. 궁금한 건 야구와 축구팀의 연고지가 둘 다 대전이기는 한데 두 개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관심이 덜해서 헛갈렸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는 건지 야구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왼쪽은 야구 패널 오른쪽은 축구 패널로 편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야구나 축구 얘기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엮어서 한 이유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하나로는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 문제였는데요.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슈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세환 교수가 처음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느껴졌고요. 인터뷰 영상은 충남지역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본 방송은 충남지역 보다는 대전지역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패널로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 박사님이 나오셔서 충남 이야기를 주로 하긴 했지만 나머지 세 분들(대전시교육청 장학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충청투데이 기자)은 주로 대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터뷰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2월 19일에는 사라지는 지역서점 문제를 다뤘는데요. 윤대엽 교수님이 컴백하시면서 진행이 생동감 있고 노련미들이 다시 돋보였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서점 문제도 최근 우리 지역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고, 특히 계룡문고의 경영난 문제도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역에 많은 독립 서점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대단히 의미 깊은 주제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시각각>에 세 분 또는 네 분 정도의 패널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표출하는데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그 분들의 발언이나 메시지 전달에서 집중도가 떨어 집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통계나 사실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막이나 그래픽 작업들이 덧붙여진다면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패널들의 이야기들을 보충할 수 있는 중간 영상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방초 조현희 교사님께서 서점 견학을 활용한 교육 사례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리포트 형태로 중간에 영상을 보여줬더라면 설명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중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서점을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영상으로 리포트 형태로 제작해서 중간에 보여줬더라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보셨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대전 지역 사정도 다르다는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물을 보여주었다면 훨씬 생동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철 교수님의 독서 클럽도 자료 사진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손기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손기배 위원

지난 시청자위원회 때 난방비와 관련 보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들을 보았습니다. 2월 1일에는 대전 세종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 2월 4일에는 유성구 음식점과 위생업소에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내용, 2월 5일에는 대전 중구의 복지위기 가정의 난방비액이 지원된다는 내용, 2월 13일에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 등 관련된 보도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시청자위원회 시점에서는 지역에서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속 보도들이 나오니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난방비 공공요금 증가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 주시는 게 건설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한파 쉼터와 관련된 보도도 후속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대부분의 한파 쉼터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노인 분들이 외부인의 경로당 이용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시의 입장까지도 같이 보도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정말 추워서 동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제외하고 경로당을 쉼터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냥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에도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 목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갈까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애초에 정책적으로 접근 방식이 잘못됐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경로당을 찾아가도 된다는 그런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맞는지. 심지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반증하듯 한파쉼터나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하고 지정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만큼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보도를 하시면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짚어주신 것은 대전 MBC의 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흐뭇하고 공영방송사로서 좋은 태도이지 않았나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지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그 보도들을 꼼꼼히 다 챙겨보신 손기배 의원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저도 <시시각각>하고 보도 중심으로 봤는데요. 시시각각 지역서점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지역서점에 대한 표면적인 얘기만 했다면 이번에 더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했던 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보도 관련해서 신세계 지역 환원운동 80억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문제인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임차료가 지역 환원금으로 계속 쓰여야 되는데 이게 관광공사의 수익으로만 인정된 구조에 대해 깊게 파고든 부분은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위원 관련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성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건 세대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 나이가 제일 어린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40대 이상만 있는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학생부도 들어오는 것까지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청년 세대도 적극적으로 오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개편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시사프로그램은 MBC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동안 전통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없잖아요. 물론 보도 측면에서 심층 취재도 하시지만 인력에 한계는 있겠지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의 시사프로그램은 꼭 필요한데 지금은 K본부에만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 같이 시사 집중 프로그램은 MBC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라도 다시 부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MBC는 그동안 시사프로그램에 있어서 정말 지역성을 잘 구현

했던 방송국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청자 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셨는데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먼저 요즘 티르키에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가 침울한데 MBC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가서 취재하고 모금방송도 하는 것에 시청자 위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항제련소가 나오는 캠페인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런 곳이 있었나 하고 관심을 갖고 시청을 했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몰입해서 시청을 했어요. 캠페인 방송이 끝나고 장항 제련소에 대한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영상이 길다고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주는 게 아니고 짧아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캠페인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시각각>을 시청했는데요. 특히 제가 경제인이기 때문에 '지방은행 설립 올해 안에 가능할까'를 시청했어요.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을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전지역과 강원지역에 지방은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패널분들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대전지역에도 지방은행이 생기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은행을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경제인으로서 노력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M>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혜택이 있더라고요. 특히 타지에서 자기고향에 기부를 하면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판로 개척을 할 수 없는데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구매해서 기부하는 분들에게 보내주는 정말 좋은 기부 문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기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 기업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이 문화가 정말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도 잘 홍보돼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정미 위원(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은 건 아니어서 저는 특집 VOD 다큐를 봤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다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작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나왔나하고 봤더니 이번에 제작한 게 아니라 과거에 제작한 것을 다시보기 라는 이름으로 올렸더라고요. <21세기의 첨병들>, <무한경쟁 시대의 전략 대덕연구단지>, <21세기 대덕의 선택과 열린 과학>, <노벨에게 묻는다> 이렇게 4편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만들었지만 잘 만든 프로그램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올해 5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대전만큼 50주년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보거나 시사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shorts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shorts를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무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만약 DNA가 손상된다면>, <20년 전 만들었던 공짜 슈퍼컴퓨터>, <20년 전 다큐멘터리 CG> 이런 타이틀로 shorts가 있는데 재미있었고요.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현재 대전MBC의 여러 문화사업들.. 라이프 사진전과 전시회도 굉장히 좋은 shorts의 대상 내용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이것 더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각각의 시청 의견과 바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청자 위원회 의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소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시각각> MC부분은 지역에서 MC자원이 있는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3주 가량 대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보다는 안정된 측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전시티즌과 한화이글스 두 가지를 묶어 방송한 것은 한화이글스는 대중적이다 보니 충분히 분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는 한 회차 분량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담당 PD들이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역 연고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구단을 묶었던 겁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관련 방송은 담당PD가 충남교육청이나 충남전교조 측에 섭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쪽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 아 이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그래픽이나 영상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시사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약 7~8년 가까이 대전MBC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름 좋은 평가도 받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는데 저희 인력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사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지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총원이 되고 한숨 돌릴 상황이 되면 아주 진지하게 신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은행 설립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의 큰 사안이고 지금 현 시장인 이장우 시장도 공약을 내건 부분이기도 해서 장기적인 아이템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에서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향후에 실제 그 지역에 중계차가 나가서 예를 들면 청양군이나 예산군 지역 농산물도 소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디테일하게 소개드리고 홍보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 중인데요. 다음 달이 되면 아마 그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청자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기웅 보도국장

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난방비 관련 보도는 지난 시청자 위원회 때 말씀해 주시고 또 모니터 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요금 이슈든 난방비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종합대책을 또 내놨는데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한 연료 가스라든지 조리용 연료들에 대한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고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챙겨보는 것들이 공영방송을 떠나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을 발굴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 쉼터 활용 제약 부분들은 후속 보도들을 하면서도 지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비롯된 것들이 겨울 한파쉼터로 확대된 것으로 보여 되는데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말고도 공공기관들 은행이라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경로당이라는 특정 한정적인 공간 자체를 어떤 한파 쉼터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과거 에너지에 대한 대책들을 볼 때 에너지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흔히 연탄 나르기나 연탄은행 정도를 생각했는데 사실 연탄 가구들보다는 가스나 기름을 쓰는 소외 계층들이 많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데 지원 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점들이 있었죠.

그런 미스매칭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발굴하고 보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할 수 있고 큰 정책일 수 있지만 재작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기치로 걸고 후속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부분들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 저널리즘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세계 지역 환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대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일맥상통한 부분이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얼마나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과학 문화 공간을 사실상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과학문화 발전에 쓰여 져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80억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들어올 임차료 수익을 계산할 때 관광공사나 집행기관에서도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 제기였고 계속해서 추적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청사를 당초에는 입주해 있는 곳에 있다가 과기정통부 청사를 뺏으면서 170억이라는 불필요한 이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도 국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한 발굴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의제 제기들이 올 한 해 대전MBC 뉴스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신 지방은행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경제 이슈인데 올 한해 지역 경제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지방은행은 대전뿐만이 아니라 충청지역 전체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제화해서 올 한 해도 관심 갖고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표 간사

김정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법 87조와 당사 규정에 의해서 시청자 위원들을 여성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12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저희가 연령대나 청년층을 배제한 적은 없었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20대 여성 잡지편집인이 시청자 위원으로 추천돼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 연령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으니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신지요? 특별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

서 마정미 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정미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모두에서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죠.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이 될 텐데. 변화의 바람이 땀샘 바람이기도하고 또 먼지도 같이 날아오는 듯 한 어수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버티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를 해 주시지만 콘텐츠 외적인 문제로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시다만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대덕 50년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주목을 해왔고 보도는 보도대로 편성은 편성대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연중 캠페인으로 작년에는 <고마워유 함께 가유>를 했었고 올해는 <힘을내유 같이가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전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분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힘을 내고자 하는 거였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힘을 내자 그런 측면에서 연중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전 충남 지역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대전하고 충남이 1등에서 내려왔다고 좋아하기도 하던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우리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지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힘을내유 같이가유> 캠페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역방송으로서 대전MBC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미 여러 단체의 회장님들한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것이 구체화돼서 함께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획들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구체화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